

중기중앙회-중기부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부는 올해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이은천 오비오 대표이사, 박용순 티케이씨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은천 오비오 대표이사 박용순 티케이씨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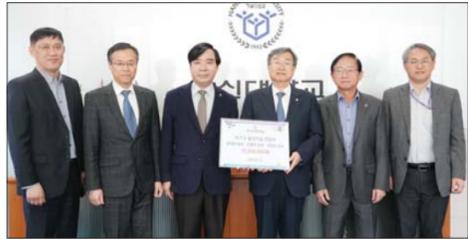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최빛나 기자 vitna@



기보-협성대, 창업·벤처기업 육성 업무협약

기보는 협성대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4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보 조영길 경기지역본부장(오른쪽)이 협성대 학교 박남수 산학협력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온라인 신학석사 발전기금 전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지난 19일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온라인 신학석사(M.T.S)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왼쪽부터) 임충 부처장, 전철 신학대학원장, 강성영 총장, 안병주 장로, 박창수 장로, 이서영 교학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신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원주 대표이사 선임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B2B(기업 간 거래) IT 및 AI 인프라 기술력을 결집하기 위해 새로운 리더를 발탁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5일 열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원주 대표이사(사진)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 계열사 디케이테크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이 대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으로 2008년 카카오에 합류한 후, 2015년 디케이테크인 대표로 선임돼 약 10년간 기업의 성장을 주도해왔다.

/김현정 기자 hjk1@

인사

- ◆에프앤가이드 ◇이기태 대표
- ◆경희대학교의료원 △경희대학교의료원장 오주형

부음

▲ 이정연씨 별세, 이상열(위키토리 경기인천취재본부장)·이정민씨 아들상 = 25일 오전 5시, 경기도의료원의 정부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031-828-5441

‘글로벌 삼성 이끈 샐러리맨’ 한종희 부회장 별세

삼성 TV 사업 ‘글로벌 1위’ 주역
빈소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3월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장지는 시안 가족추모공원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한 부회장이 37년간 회사에 헌신했다”며 “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제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지난 주말 휴식 중 심장지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 한종희 부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김용관 반도체(DS)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1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부문 사장, 최시영 파운드리 부문 사장 등 전현 삼성 관계자들이 빈소를 찾았고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계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이찬희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장은 빈소를 찾으며 취재진들에게 “정말 슬픈 일”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이재용 삼성전

자 회장은 일정상 직접 조문을 못한 채 유가족들에게 멀리서나마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삼성 전자측은 전했다.

한 부회장은 1962년 3월 15일생으로 천안고등학교와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1988년 삼성전자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에 입사

하여 37년동안 TV, 생활가전, 모바일 등 주요 사업을 두루 이끌며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2021년 말에는 디바이스 경험(DX)부문 부회장으로 선임된 후 TV, 스마트폰, 가전 등을 총괄하며 ‘생활가전 통합 전략’을 주도했다. 특히 ‘고객 중심 경영’을 강조하며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차세대 사용자 경험(UX) 혁신에 앞장섰다.

사내에서는 강한 추진력과 섬세함을 겸비한 리더로 평가받았다. 조직 내 신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글로벌 1위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공시를 통해 한 부회장의 유고에 따라 전영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산불 피해복구 지원

주요 기업, 온정의 손길... 성금·구호물품 ‘붓물’

신세계그룹 성금 5억 기탁
CJ제일제당 1만개 제품 전달
SPC그룹 빵·생수 7000개 지원
농심 이머전시 푸드팩 3000 세트
동아제약 판피린 등 의약품 전달



이마트한 음급구호키트

/신세계그룹



농심 이머전시 푸드팩

/농심

최근 발생한 산불로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에 피해가 나을 때 이어지는 가운데, 유통업체가 긴급 지원에 나서며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25일 신세계그룹은 의성 산불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복구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억원을 기탁하고, 구호물품 지원을 통해 이재민 돕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계열사인 이마트와 이마트24 역시 피해 지역에 긴급 물품을 전달하며 구호 활동에

동참했다. 편의점 업계도 구호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과 의성군 주민들을 위해 생수, 파이프, 용기면, 캔커피 등으로 구성된 구호물품 5000여 개를 지원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사회공헌 전담 조직인 ‘BGF브릿지’를 가동, BGF로지스 대구·진

주센터를 통해 이재민 대피소인 의성체육관과 산청청복지관에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식품업계도 산불 이재민 구호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 지역에 햇반, 비비고 국물요리 등 가정간편식(HMR)과 간식류 등 총 1만여 개의 제품을 전달했다.

SPC그룹은 SPC행복한재단을

통해 빵 5000개, 생수 2000개 등 총 7000개의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농심은 라면과 생수로 구성된 ‘이머전시 푸드팩’ 3000세트를 긴급 지원했다.

오투기는 컵라면과 컵밥 등 간편식 제품 1만여 개를,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멸균우유(200ml) 2만 3400개를 피해 지역에 제공했다.

주요 제약사들도 피해 복구에 동참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감기약 ‘판피린’, 어린이 감기약 ‘챔프’, 소화제 ‘베나치오’ 등 의약품 3600여 개와 자양강장제 ‘박카스D’ 4000명을 봉사약국 트럭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광동제약 역시 ‘헬스케어 푸드팩’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 썬키스트 음료를 피해 지역에 전달했다.

/신원선·이청하·안재선 기자 tree6834@

권오갑 회장 “복구활동 지원 최선” (HD현대)

성금 7억 기탁... 물자 지원도

HD현대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나선다.

HD현대는 울산 울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 대형 산불 발생지역의 주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원 규모의 성금 및 구호물자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HD현대1%나눔재단이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7억원의 성금을 기탁한다. 성금은 ▲산불피해 긴급 구호 ▲이재민 생필품 지원·주거 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HD현대 계열사들은 3억원 상



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한다. HD현대의 건설기계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굴착기와 인력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권오갑 HD현대1%나눔재단 이사장(사진)은 “갑작스런 산불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주민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소기업계, 생필품 등 5억 기부

중소기업계가 산불 피해 이재민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이재민 대피소에 2억원 상당의 침구류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추

후 이재민이 복귀 시점에 맞춰 3억원 상당의 생활가전과 가구 및 의류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소외계층을 위해 중소기업인들이 지난해 십시일반 동참한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도요타, 1억 기탁

한국도요타자동차는 최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되며 경상남도 산청, 경상북도 의성 등 경상도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 및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